

보도

예비군 훈련 참석, 불이익은 '위법'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서울】 최근 서울대에서 불거진 '예비역 휴대' 갈등으로 대학가가 혼란을 겪는 가운데, 우리학교도 비슷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훈련 일정을 이유로 쪽지시험을 치지 말라고 통보받고 따가운 눈초리를 사거나 훈련 참여로 별점을 부여받았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경영대학 K 교수는 학과 단체가 아니라 따로 훈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예비역에게 불이익을 주려했다. 수강생에게 "쪽지 시험을 아예 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해당 학생인 A 씨는 K 교수에 대해 "훈련 참여 인정은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셨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 씨는 이어 "당초 수업을 빠지기 싫어 훈련을 주말로 대체했지만, 예비군 중대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된 것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각하셨다"며 "안된다고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사정만 끝에 겨우 쪽지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J 교수는 지난 학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참에 별점을 부여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동일한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J 교수는 "과거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협조문은 지각과 똑같이 처리한다"며 "예비군 훈련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면 출석 규정을 타협하는 수업 초기에 수강생이 미리 이야기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J 교수는 예비군 훈련 참석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위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단과대 행정실 측에서 따로 공지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 측 규정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비군연대 조병락 계장은 해당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불이익"이라며 문제성을 지적했다. 또 "과거에도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훈련 참여를 결석으로 처리해 예비역들이 단체로 찾아와 항의했던 적이 있었다"며 "이런 식이면 대체 학생들 누가 훈련 가려고 하겠느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조 계장은 또 "지난달 예비군연대 측에서 예비역들의 학업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지만, 행정실에서 교수들에게 관련 규정을 잘 전달했는지 의문"이라며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각 단과대에서 관련 문제를 너무 등한시한다"며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학칙에서 명시하는 예비군 훈련 참여에 대한 출석 처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사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담당 교감사에게 제출하고, 교감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이를 강제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학사지원과 전준하 직원은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아예 금지하는 법문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학칙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공문을 다시 전파하는 것이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독립기구 지위 가진 인권센터, 8월말 출범 목표

안나연 기자 na@khu.ac.kr

지난해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노조)이 요구한 인권센터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학본부는 "인권센터 구성 초안이 나온 상태이며 현재 초안에 대해 노조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 측은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출범할 것"과 "독립적인 지위의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는 오는 8월 말까지 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인권센터를 출범할 계획이다.

미래정책원 정민섭 팀장은 "우리학교에 옴부즈스팀이나 성평등 상담실 등 다른 학교보다 선제적인 기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 인권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없다는 자성이 노조에서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본부 역시 시대적 흐름에 공감해 인권을 깊이 있게 교육하고,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출범 취지를 밝혔다.

정 팀장에 따르면 본부의 초안은 전문 인력으로 이루어진 인권센터 내부에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인권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인권센터는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를 아우르는 공동팀으로 인권센터장을 포함해 3~4명의 인권전문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문 인력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는 상담을 비롯한 교육·연구 등 실무를 담당한다.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은 총 9명으로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을 한다.

인권센터 내부에 인권위원회를 별도로 둔 것에 대해 정 팀장은 "실무와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구분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인권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며 "제도의 변경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요구될 때에는 인권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센터의 핵심은 교육·연구"라며 "인권위원회를 통해 어떠한 부서나 특정한 인물에 대한 징계 권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할 수는 있다"며 직접적인 징계 권한은 없음을 강조했다.

연세대는 지난 2017년에 윤리위원회 산하에 인권센터를 개소했다. 연세대 인권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직원이 근무하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정 팀장은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 인력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할 수 없었다"며 "차질 행정력의 낭비처럼 보일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공동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있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한 캠퍼스에 상주해있는 직원은 없겠지만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현 노조위원장은 "인권센터 초안의 세부적인 내용에선 이견이 존재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조속한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오는 8월 말까지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준비가 짧은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조직의 구성이나 인력에 대해 완벽히 준비돼있지 않은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한 조직을 만들 수는 없다"며 "신속한 출범이 중요한 것"이라 전했다.

조인원 총장 "회의체 성격, 정비 하겠다"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지난 달 24일 있었던 2차 합동교무위원회에서는 교무위원 소통체계 개선과 우수교원영입시스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처장회의, 학장회의 등 회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학과 교수들과 처장이 만나는 자리가 없다는 지적과 회의자료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회

의체의 성격을 정비해야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논의 결과 발표가 아닌 토론 위주 형식으로 전환하고 회의 결과를 전체 구성원과 소통,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우수교원영입을 위해 단과대에서 S&R 위원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해 신입교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우수석학을 영입하기 위해 ES/IS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신입교수의 경우 1년 간 3시수를 감면해 주어

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우수교원 초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직의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신입교원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인원 총장은 "이 회의에 대한 내용은 수시로 검토하겠다"며 "회의체의 유연화, 회의체마다 성격이 달라야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 KHU '웃는 사자'를 찾습니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원)생을 찾습니다.

도전 정신을 갖고 관심 분야에 탁월한 성취를 일구고 본교의 위상을 높인 학생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에 감동과 주공감을 형성한 학생 후마니타스칼리지 시인교과를 통해 사회 문제를 발견, 적극적 노력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낸 학생 실천인간의 정신으로 인물을 구조하거나 재능을 등 공적 실천을 한 학생 봉사 활동을 통한 탁월한 성과로 인류 평화와 나눔을 실천, 지구 공동체의 건설에 이바지 한 학생

공모 부문: 학술연구/사회공헌/문화예술/체육

시상 내역: 상장 및 소정의 장학금 (단, 학교 장학금에 따라 지급 대상 및 범위는 재해 변함)

신청 절차: 심사위원회 심사서류 가져 최종 선정

수혜처: 추후 공지

문의처: 1대학연구/문화/인문/체육/경영/의료, 2대학원/법/세/비서/인문/언어 - 화상, 3대학원/미디어/스포츠/인문 서비스/기타(교직원/후-비서)

2. 열: 1. 자유 열

경희의 UCC(쿠씨씨) 'KHUCC'를 공모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희'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 만든 '영상'을 기다립니다.

- 학생들이 표현하는 경희의 자랑거리 (장학, 제도, 성과, 문화, 비전, 공간 등 경희의 자랑거리를 UCC로 구성)
- 세계화와 경희
- 문화전환기 대학의 역할

2018 KHUCC(쿠씨씨) 공모

시상 내역: 8월 말 경희대 10.000원 상당의 장학금

신청 방법: 1. 1회차 (1명) : 200원 2. 우수 2명(팀) : 1000원 3. 장려 3명(팀) : 500원

신청 절차: 심사위원회 심사서류 가져 최종 선정

수혜처: 추후 공지

5월 넷째 주 (05.21~05.25)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준비!! 미래인재센터와 함께하세요.'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리쿠르팅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청년취업이카데미 마케팅리서치 양성과정성명회	5.24(목) 16:30~17:3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고학년(3~4학년) 진로 멘토링	~ 5.24(목) 18:00	재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졸업생: job@khu.ac.kr	홈페이지 참조 (사전접수)
청년취업이카데미 파이낸셜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 신청	~ 5.25(금)	job@khu.ac.kr 접수	홈페이지 참조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사전 신청(행사 당일까지 가능),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신청-연수 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 완료

* 신청 후 '합격여부' 발표는 하지 않으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함.

* 협조진 발급은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 기타사항은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교내공지) 및 페이스북, 학교커뮤니티, 단과대학 홈페이지 참조.

2. 취업상담 맞춤형 컨설팅 (11)

◆ 대상: 부교원,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실시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일시	담당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월요일-금요일	문상기 이연의	청운관 1층 상담실 오비스홀 355호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 신청
월요일-금요일	박인경	제법학관 107-2호	
월요일-금요일	홍상기 오신중	청운관(1층) 6번 상담실 오비스홀 356호	

◆ 상담 신청자 유의: 취업준비도 검사(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후 각 1회(총 2회) 필수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취소 불가 (상담 당일 1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출력하여 지참(필수)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관

서울캠퍼스 미래인재센터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안내

1. 신청대상: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2. 1차 학생 신청기간: 2018.05.17(목) 09:00 ~ 06.15(금) 18:00

※ 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할 것 (단, 재학생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신청 가능)

3. 서류제출 및 기구원 동의: 2018.05.17(목) 09:00 ~ 06.15(금) 18:00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5. 제도 개선 사항: 2018-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 선택시: 기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 와 동일함 소득구간 확정
-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 선택시: 기존 소득구간 신청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신청

6. 문의: 한국장학재단 고객 상담센터 1599-2000

※ 제도 개선 사항 및 기타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바람

2018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1차 학생신청 안내

1. 장학명: 국가 교육근로장학

2. 장학목적: 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나. 직업체질 기(회)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

3. 주요내용: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지급 가. 교내근로: 시간당 8,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9,500원 나. 근로시간: 1월 8시간, 1주 20시간(학기중), 학기 450시간 내외 진행

4. 신청기간: 2018.05.17(목) 09:00 ~ 06.15(금) 18:00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 학생신청 매뉴얼 참조

6. 안내사항: 가. 2018-2학기 1차 신청기간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학기 모든 근로유형(학교 내 교육근로, 지역사회교육근로, 현장교육근로 중 교육활동지원분야) 참여 가능하다. 2018-2학기 1차 신청기간 동안 2018-1학기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현장교육근로유형 중 교육활동유형 분야 신청은 불가능하며, 동 신청기간 종료 후 재개다. 2018-2학기 1차 신청기간에 국가 교육근로장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통계방학 집중 교육근로 참여 불가

7.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대표번호(1599-2000)

한국장학재단